성공 대신 기쁨이 과제다

(느헤미야 8:1~18)

9.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1.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12.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앎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성공 대신 기쁨이 과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성공 대신 기쁨이 과제다'
달라이 라마(Dalai Lama)와 투투(Desmond Mpilo Tutu) 대주교를 아실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80번째 생일이 맞이하여 'JOY, 기쁨의 발견'이라는 제목의 책이 한권 나왔습니다. 2015년 인도의 다람살라에서 달라이 라마와 투투 주교가 만나서 대담한 내용입니다. 인류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두 지혜자가 만나서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기쁨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의문점입니다.
결국 이 두 분이 대화의 결론을 책에 담아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쁨은 외부 환경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 분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위험의 고비들을 넘기며 티베트를 떠나서 인도에서 50년이 넘게 망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삶에서 기쁨으로 생의 시간들을 채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쁨을 추구하고 올바르게 쟁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인권운동에 앞장서며 여러 고난을 겪었고 전립선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투투 대주교가 유머를 잃지 않고 항상 주변을 밝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기쁨을 찾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

다.
책에서는 이렇게 기쁨을 찾는 이 길을 모든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 기쁨의 여덟 가지 기둥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질은 관점, 겸손, 유머, 용서, 수용, 감사, 연민, 베풂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두 분의 대화의 주제가 참으로 탁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지만 이 두 분의 대화의 주제는 기쁨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혹은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기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간 지혜의 단계로 느껴집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은 참된 기쁨에 거하는 순간에 자아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진정한 자아를 찾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보다는 ‘어떻게 해야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주제가 실천적인 면에서는 지혜에 더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달라이 라마와 투투 대주교가 대화를 나누고 제시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길로서의 여덟 가지 자질에서 저는 좌절합니다. 사물을 바라볼 때에 관점을 바꾸고, 겸손하고 유머를 가지고, 수용하고 용서하며, 감사와 연민과 베풂을 할 때에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보통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기쁨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내 마음의 여덟 가지 덕성을 통해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기쁨의 대상에 전적으로 관여됩니다. 어떤 대상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기쁨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기쁨의 근거가 될 수 없는 대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쁨은 인간의 자질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겸손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완악하여 남에게 베풀지 못할지라도 올바른 대상을 붙잡고 그 대상과의 관계에 몰입하고 씨름할 때에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은 기쁨의 동산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쁨은 요한복음에서 그 비밀이 드러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일체가 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에 인간을 동참시키고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 열매를 따기 원합니다. 그러나 타락 전의 에덴동산에서의 삶은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기뻐하면 성공이나 결실은 저절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성공하느냐가 과제가 아니라 어떻게 기뻐하느냐가 과제입니다. 그 기쁨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서 하나님과 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곧 두 개의 주체가 일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주체는 다른 하나의 주체에 대해 무릎을 꿇음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판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주체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과제로 삼으면 이 세상의 삶에서 성공과 결실은 저절로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면 되는 것이었고 그 기쁨의 유일한 대상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기쁨을 얻는 데에 자질이나 덕성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모시면 되고 그 결과로 겸손이나 베풂이나 용서로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나 투투 주교는 기쁘기 위한 여덟 가지 자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셔서 기뻐질 때에 용서 온유 겸손 감사 베풂 등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인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합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6월 25일에 성벽이 완성되고 7월 1일에 신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태양력에서는 9월 10월 되는 시기인데, 이들에게는 이때가 우리의 1월 1일에 해당하는 날로 신년을 맞이하여 모든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나팔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에스라가 모인 유대 사람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해주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귀환한 이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아람어로 읽어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통곡하기 시작하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나서서 백성들에게 울지 말 것을 부탁하며, 오늘은 울 날이 아니라 기뻐해야 하는 날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냈다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왜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백성들이 울었을까요? 5~6절을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으로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손을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자마자 지금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손대고 있었던 모든 일로부터 손을 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사업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사업에서 마음의 손을 떼어야 합니다. 자식 문제에서도 손을 떼고 건강 문제에서도 손을 떼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면 모든 것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릴 때든지 말할 때든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이 몸이 완전히 하나님의 노예로 바쳐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모습이고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신 내용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입으로 말할 때에 위대하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창조된 세계를 제2의 창조를 통하여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섭리하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고 불릴 때에 마음에 관심을 두었던 것에서 손을 떼는 것이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만 살아갈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곧 수긍한다, 수용한다, 긍정한다,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내 소원과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만을 통해서 움직이겠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에스라의 율법을 들으며 울었던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나타나야만 했던 자세였고, 그러한 삶으로 일관되어야만 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민들이 내가 손대며 살아왔고 아멘! 아멘! 하는 대신에 나의 생각을 따라서 수단을 동원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대신에 내가 주인이 되어 성공을 찾았습니다. 율법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음을 후회하며 울었던 것인데, 율법책 앞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마음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와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왔음을 후회하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이 울지 말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내 삶을 위해 내 힘을 동원하며 살았습니다. 이 힘은 우상일 수도 있고, 은행이나 이웃이나 친지에게 돈을 빌리는 등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목표를 세우고 내 삶을 이끌고 갔습니다. 이제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 하나님 앞에서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이 억울하고 아까워서 울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라고 합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

한 삶의 태도를 반성하는 기준을 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반성하는 단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책 앞에서 이 세상에서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후회하면서 울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땅에서 잘못 살았음에 대한 후회만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삶에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하늘로 기뻐하는 것이 땅에서는 힘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가장 혁혁한 증거적 사건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기념되는 것은 사십년 광야생활입니다.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서 물 한 모금, 풀 한포기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백오십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광야에서 사십년 동안을 농사 한 번 짓지 않고 우물 한 번 파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이 세상에서는 죽음의 힘이 물러가고 생명의 힘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쁨을 삼는 것을 과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땅의 삶은 필요할 때마다 저절로 성공이 주어지고 결실이 주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의 일에서 손 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관심에서 손 떼라는 것이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인데 이 땅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노예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사용해 주시기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추구하는 것을 과제로 삼게 됩니다.
돈 때문에 걱정이 생기더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므로 내가 마음으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자식문제에도 손대면 안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이끌어 가십니다. 삼라만상을 이끌어 가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의 손을 대서 해결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을 오직 하나님의 노예로 드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의 과제는 돈 문제 건강문제 자식문제 등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하나님을 기뻐함이 이 땅에 대해서는 방어막으로 나타나고 성취하시는 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쁨을 찾습니까?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부활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속에서 예수님이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이것만을 과제로 삼고 모든 성공과 형통과 결실은 주어지는 만큼 아멘! 아멘! 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 증거 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